

펜디메탈린 원제시장 "눈독"

약효탁월 · 건답직파 등으로 전망 밝아 ... 한화 등 신규참여 채비

펜디메탈린 원제 수요가 비교적 오래된 제초성분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약효와 건답직파 확산 등에 힘입어 신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원제 생산기업들이 잇따라 신규참여할 채비를 갖추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6년부터 American Cyanamid로부터 국내에 전량 수입되고 있는 디니트로아니린계의 펜디메탈린 원제는 종래의 제초제로는 방제가 어려운 쇠비름 · 명아주 · 별꽃 등 광엽 잡초까지도 살초하는 확실한 약효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가장 넓은 살초스펙트럼 및 강한 흡착력 등으로 인해 수요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펜디메탈린 수요현황 (단위 : M/T, %)							
1991		1992		1993		1994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160	-	184	15.0	254	38.0	295	16.1

특히 최근 농촌일손 감소로 급격히 늘고 있는 건답직파재배 전문 논잡초약으로 새롭게 각광받으면서 발잡초제 뿐만 아니라 논잡초제에도 적용되는 등 신수요를 창출하고 있어 앞으로 시장성은 더욱 밝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왜냐하면 120만ha 규모인 현재의 농지면적이 오는 2000년에는 90 95만ha로 감소, 이중 50% 정도가 건답직파재배 형태로 변모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94년 건답직파 농지면적은 7만3000ha로 93년 7000ha에 비해 10배정도 급증했으며 95년에는 11만ha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펜디메탈린 원제 수요는 94년 295톤으로 93년 254톤에 비해 16%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91년 160톤, 92년 184톤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같은 장기적인 성장의 또다른 이유는 한국삼공 및 동양화학 등 펜디메탈린 원제 생산기업들이 길자비 유제 등 다양한 합제를 출시, 수요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펜디메탈린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 이 성분의 물질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한화를 비롯한 서한화학 및 제철화학이 이미 공장설립을 완료하는 등 시장참여를 위한 제반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계적인 카피품 생산기업으로 악명높은 이스라엘의 막태심이 이미 독성실험을 완료, 생산가동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국내시장에도 상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펜디메탈린 원제 수입가격은 Kg당 12달러로 다른 제초제 원제의 6 8달러선에 비해 고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저널 1995/6/5>